타이레놀과 하나님 관계의 착각

(욥기 35:1~16)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3.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4.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5.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6.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7.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9.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10.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11.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타이레놀과 하나님 관계의 착각>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타이레놀과 하나님 관계의 착각'

한 연구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알아보았는데, 신체적으로 통증을 느낄 때에 활성화되는 영역과 거의 같았다는 결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외로움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에도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자 미국 켄터키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네이선.D.월과 그의 동료들이 참으로 엉뚱한 발상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진정제를 먹습니다. 저는 아스피린보다는 타이레놀을 사용하는데, 이 신체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타이레놀을 외로운 사람에게 적용시켜본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먹이면 심리적으로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실험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외로움의 감정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청년이 한 여자와 애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허락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상사병이 지나치다 보면 몸에 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듯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성분이 보다 강화된 타이레놀을 먹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대로라면 지속적이고 근본적이지는 않더라도 당장의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리를 더 발전시키면 이 청년이 아가씨로 인해 고통을 느끼지만 사실 그 아가씨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순전히 주관적인 필요성에 의한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뇌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다른 조건이 만들어지면, 상사병에 걸려 아파하던 이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게 어떤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존재의 중요성은 달라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계에 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뇌가 움직이며 자기억제의 감정을 발동시킬 때에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증거로 포도당이 늘 부족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단 것을 많이 먹을 때에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따르자면 당분을 많이 섭취해서 포도당이 충분해지면 용서 못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분이 부족하면 용서할 수 있는 원수도 철천지원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평가조차도 안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부부가 50~60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채우며 키워온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주관적인 의지와 감정으로 자녀들을 정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착각이 범람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더욱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를 묻고,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체성을 늘 인정하며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참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재앙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욥이 자기착각에 빠져있다고 책망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에 들어서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욥

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든지 타인을 의롭게 여기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 대리를 좋아하는 미스 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스 리는 김 대리가 무슨 일을 시킬 때마다 자기에 대한 특별한 감정으로 시키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김 대리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기에 미스 리를 여자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미스 리가 생일이 되어서 김 대리에게서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혼자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하루 종일이 다 지나가도록 생일에 대해 어떤 축하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미스 리가 김 대리를 불러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우연찮게 김 대리의 약혼자가 회사에 왔다가 이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이 약혼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욥에게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누구이기에 남의 약혼자에게 생일 선물을 요구한단 말이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김 대리야 말로 깜짝 놀라서 미스 리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정할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착각 속에 빠져있던 미스 리와 같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무척이나 가까운 관계로 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혼자 착각에 빠져서 난리를 피우는 것은 아닌지, 실제 하나님과는 무관한 공상 속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감정적이 되어서 욥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엘리후의 논지 자체는 우리 신앙에도 큰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것이 단지 타이레놀 한 알에도 사라져버릴 주관적 고통 때문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사람들이 주로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 고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밤'은 고통을 뜻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처지를 말하는 것인데 곧 고통과는 무관하게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객관적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고통에 짓눌린 채로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표현일 뿐 객관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던 여자로 인해 괴로워하던 청년이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외로움이 덜해져서 여자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통에 겨워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다보니 헛바퀴를 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지에 대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텐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듣지도 못한 채로 내 주관적 고통에 대해서만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물론 욥은 만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기에 엘리후의 이러한 발언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논지는 자체로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점검 포인트를 제공해줍니다. 타이레놀 한 알에도 사라질 그리움이라면 그것이 내게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내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가 외로움에 치우쳐 있을 뿐입니다. 이 외로움이 해결될 때에 그 여자가 필요 없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흥은 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잘 살아 보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돈이 타이레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흥 강사들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기독교가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어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교인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교회를 대체하는 타이레놀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미국과 비교해도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병원 시설도 좋고 의료 수준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옛날에는 병 고침의 기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켜줄 의료기술이라는 대체가 생기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찾았던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관적 필요성을 만족시켜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교회로 인도하셨을 수 있지만, 교회는 이들에게 주관적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아닌 객관적 하나님을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체로 인한 반응에 의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이미 내 안에 주관적인 조건에 종속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대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짜이며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 반응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실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서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고 몇 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밝히 보이기 전에는 실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내 마음에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돈 문제라는 내 마음의 주관적 조건에 의해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이라는 타이레놀이 주어질 때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건강이나 자녀 혹은 나라 문제가 마음에 밝히 보인다면 십자가는 보이지 않든지 희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도달할 길을 잃게 됩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가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 가야만 합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 플랫폼으로 가야만 하는데 이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돈 문제를 밝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밝히 보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써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볼 때에 내 마음은 실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후가 본문 9~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찾는 일이 됩니다. 십자가를 밝히 보면 돈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것은 돈 문제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돈 건강 자녀 나라의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 오히려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객관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전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사건사고들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밝히 바라볼수록 내 마음에는 주관적 조건이 형성되고 그 조건에 맞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을 엘리후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이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비판 속에는 신앙인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주의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과 상황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밝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올바른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자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보다도 십자가를 밝히 봄

으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의 문제가 밤처럼 어두울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 대한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에 따른 가장 적합한 말과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착각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 어떤 문제와 대상 앞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밝히 보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